



“제주밭담 총 길이 전수조사해야”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생태학적 가치를 제로 명하고, 밭담의 총 길이에 대한 전수조사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8일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상공회의소)에서 제주밭담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를 주제로 ‘제주밭담발’ 국가농업유산지정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농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 고성보 제주대 교수가 ‘제주경관자원(제주밭담)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강성기 제주대 특별연구원이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밭담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승진 연구위원은 “국가농업유산 지정 이후 약 2만2108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밭담의 길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한 뒤 ▷농업유산지정 인식 확산 등 국민 공감대 ▷농업유산 지일조례 제정 ▷DB구축 및 관리·보존·복원·활용 지원 등 방안 ▷장인, 해설사 육성 및 농업유산 아카데미 운영 ▷지역 자원화·브랜드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 형성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등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성보 교수는 “WTO, FTA로 농업·농촌의 환경자원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에서도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채, 감귤, 밭담 등에 대한 경관보전지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상이한 지역의 제주도 밭담의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통해서 등급차이에 따른 경관보전지침의 차별적인 적용방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자원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강성기 연구위원은 “밭담발의 역사적 가치는 1200년대 제주 농업의 변화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단서이고,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 특색문화(방목문화)와 자연환경(화산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점”이라며 “선과 경계지라는 면의 조화미와 계절별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미를 지닌 경관적 가치와 밭담 주변의 미기후가 만들어 이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인문학적 범위를 넘어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



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밭담발’ 국가농업유산지정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농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경민기자

발전연구원 ‘돌담발’ 농업유산지정 기념 세미나 조례·장인 육성 등 세계농업유산 등재 방안 제시

“훼손지역 조사 2만2108km 추정치는 오차... ‘흑룡만리’ 대신 유물의 가치 담긴 명칭을”

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희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 전역 돌문화 현황 조사 및 원형 분포 지도 작성 ▷학습의 장으로 돌문화 생활유적의 복원 및 보전 ▷돌문화를 활용한 문화 축제 개발 ▷돌문화 관광책자 및 관광지도 제작 ▷제주돌문화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 개발 ▷제주 돌문화 총서 발간 등 제주 돌문화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강경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제주의 돌담은 의식주, 농업, 목장, 방어시설, 통신,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풍경인 동시에 아이콘”이라며 “‘흑룡만리’라는 명칭보다는 섬에서 태어나 산 사람이 모두 참여 만든 유물로서의 돌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호 제주대 교수는 “2007년 ‘돌담 문화자원 활용 위한 농촌경관보전지침 연구’ 당시 추산된 밭담 길이 2만2108km는 이미 경지정리가 이뤄져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일주도로변에서 엄청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경관보전지침을 시행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일점 지

역을 매입해 별도의 문화재로 지정, 원형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돌담발은 의형적 아름다움의 가치뿐만 아니라 돌담발을 형성해온 제주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담긴 중요한 문화경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라며 “문화재 보호와 관리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방대한 지역을 지정할 후에는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와 관리를 위한 예산 부담도 수반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보호 및 관리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지역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업선진국은 기존 농업정책 위주에서 농촌정책으로, 농촌정책도 개발에서 농촌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국가농업유산 지정 정책을 소개했다.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강제 소유에 대한 경계와 우마의 침입 방지, 양전·토지대장·경계 측량 등 ‘고문헌에 나타난 돌에 대한 인식

화에 대한 강연을 통해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실제 소품을 이용해 토속민요를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제주농요와 해녀 노젓는 소리, 파랑새의 날갯짓, 방아 찿소리 등을 선보인다. 문의 754-2057. 문기혁기자

색채와 빛의 공명, 그 아름다움

블랙스미스 신제주점, 고민철 초대전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신제주점이 지난 8일부터 고민철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고민철 작가의 수줍은 붓끝에서 탄생한 색채와 빛의 공명(共鳴), 그 아름다움을 식탁 위에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00호 5점과 50호 2점을 포함해 한라산과 누드(드로잉) 등 평면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일반전시실을 떠난 이번 전시회는 작품과 대중의 소통을 보다 확장시켜 제주도민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가의 고뇌와 독특한 조형정신을 엿볼 수 있는 원색이 두드러지는 드로잉 작품과 최근 인체를 소재로 한 형상적 부분으로 작가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작업일지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선과 색채를 사용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인체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조형을 탐구하고 있다. 인체를 보다 단순화된 형상으로 시각화해 그 속에 내재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본질이란 다름 아닌 감정의 표현이다. 인체는 정적인 사물과는 달리 동적이며 다양한 모습을 띠어 힘든 영역이지만 수많은 드로잉과 탐구의 자세는 물론 작가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작가는 개인전 4회와 다수의 그룹전·초대전 등에 참여했으며,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



‘포즈’

는 제주미술제 선정작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는 6월 8일까지. 문의 711-7887. 표성준기자

바람의 신 영등할망맞이 영등환영제

내일 제주시 수협위원장

서북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환영하는 풍어제를 겸한 영등환영제가 12일 오전 9시 제주시 수협위원장에서 열린다.

‘영등할망’은 ‘영등달’인 음력 2월 1일 제주에 찾아와 어부나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음력 2월 15일 본국으로 떠나는 바람의 신으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로 나눠 치러지며, 환영제보다 송별제가 더 규모가 크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영등환영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기능보유자인 김윤수씨의 집제로 모든 신을 초청하는 ‘초강제’, 분향신을 청하는 ‘분향돌’, 용왕과 영등신을 청해 어부와 해녀의 해상안전과 풍요를 비는 ‘요왕맞이’,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도진’ 순으로 진행된다.

영등굿의 기원은 정확히 할 수 없으나 제주도에서만 뚜렷하게 남아 있는 당굿으로 지금까지도 전승돼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환영하는 풍어제를 겸한 영등환영제가 12일 오전 9시 제주시 수협위원장에서 열린다.

한편 송별제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열린다. 문의 710-3421. 표성준기자

공기 2564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공기 2564년 춘기석전대제가 12일 오전 10시 제주·정의·대정향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농을 석(釋)과 드림 전(奠)의 합자인 석전은 성현의 재단 위에 제수를 차려놓고 폐백과 술을 드리는 의식을 함축한 말로 예기(禮記) 문황제사편 기록에 학문의 뜻을 세운 자는 반드시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석전의 예를 갖춘다는 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성종 11년(992년) 개경에 국자감을 세우고 석전을 시작한 후 조선 태조 7년 송교방(현재 명륜동)에 선공관을 설립하고 문묘에서 석전을 거행해 오는데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의 향교에서 일시에 춘기석전은 2월 상경일에 추기석전은 8월 상경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문의 710-3421.

제주영상위·대진애니메이션 업무협약

(사)제주영상위원회는 8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대진애니메이션과 제주지역에서의 영상콘텐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미래의 자원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필요한 문화원형을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해 컬러 콘텐츠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대진애니메이션은 일본 TMS엔터테인먼트와 3년간 총 150억원의 영상물 수주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표성준기자

제주농요 김향옥 초청공연 13일 제주대문화광장

제주대학교 열린 문화광장인 제주대문화광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전수교인 김향옥씨와 이수자인 김향희씨를 초청해 공연을 연다. 김향옥·김향희씨는 제주농요 예능보유자였던 고 이명숙 선생의 유지를 이어 제주농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주대문화광장에서는 전통문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체

제주⇌니가타 직항전세기

동경. 닛코 3일 899,000원 (박찬 3일)

5월4일 출발(단1회)

상품특징

- ◆ 닛코를 보지 않고 일본을 논하지 말라 일본최고의 절경과 세계문화유산 ‘닛코’(99m계곡노포곡, 칼데라호수, 주젠지코동)
- ◆ 온천욕체험 (기누가와 온천)
- ◆ 일본 “신칸센타고 동경여행” 황거, 아사쿠사관음사,신주쿠거리, 신칸센열차체험 등

포함사항 : 항공료, 숙박료(2인1실), 차량료, 식사료, 입장료, 보험료,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비 2만원

해외여행전문 제주드림여행사 721-7500 www.jdkorea.net

국내여행전문